



## Chungnam Economic Trends

경제일지





# 충남경제일지

ISSUE/기업탐방

경제동향

경제일지

경제지표

특별

## [’13. 8. 20] 외투단지 ‘충남형 창조경제 실현’ 앞장

### - 직접고용 5236명·31억9000만불 수출 등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-

- 충남도는 외국의 강소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5236명과 수출 31억9000만불 등의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나 충남형 창조경제 실현 전망을 밝게 하고 있음
  - 도는 지난 1994년 천안 백석단지와 2004년 아산 인주단지 등 외국인 투자단지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2012년 말까지 ▲FDI(외국인직접투자) 4억3000만불 ▲총생산 8조 245억원 ▲수출 31억9000만불 ▲직접고용 5236명 등의 성과를 보였다고 밝힘
  -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천안 제5산업단지(33만6208㎡)를 외국인투자단지로 지정하고,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외국 강소기업과 삼성반도체 등 앵커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
  - 특히 천안제5산단 외투단지는 최근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일본 F사가 88억원(FDI 500만불)을 투자, 고속철도 등에 쓰이는 베어링리테이너 부품을 올해 10월부터 생산 예정
  - 현재 천안5산단 외투단지는 면적대비 108%의 투자협약을 확보한 상태로, 도는 외투기업 입주 후 정상가동 시에는 ▲직접고용 2000명 이상 ▲수출 4억불 ▲수입대체 2억불 ▲매출 6억불 등의 경제효과 기대
  - 이와 함께 도는 천안 5산단 외투단지 정상가동 시 ▲생산유발효과 5억5000만불 ▲간접생산유발효과 75억불 ▲부가가치창출효과 28억불 ▲연평균 조세수입발생액 518억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
  - 도는 앞으로도 도내 외투단지에 첨단디스플레이 제품 등 부품소재 강소기업을 적극 유치해 약 2억불 이상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도하는 한편, 외투기업이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할 수 있는 ‘착한 기업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충남형 창조경제를 실현해 나갈 방침
  - 도 관계자는 “고용효과, 조세수입 등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오랜 기간 돈 버는 것이 국가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좋은 일”이라며 “도 전략산업과 연계한 부품·소재분야의 강소 외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갈 것”이라고 전함

## [’13. 8. 15] 도내 대부업체 감소세 뚜렷

### -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말 대비 30개 업체 감소 -

- 충남도는 올해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말 290개 업체에서 30곳이

줄어든 260개 업체로 확인

- 이번 실태조사 결과 도내 대부업체 등록업체는 6월말 기준 대부업 196곳, 중개업 24곳, 대부 및 중개 겸업 40곳으로 총 260개로 집계
- 이러한 도내 대부업체의 감소세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운영과 미등록 대부업체와 불법채권 추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 따른 것으로 풀이됨
- 도는 이번 폐업신고를 한 업체가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지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할 방침
- 도 관계자는 “미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체 이용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”며 “충남도는 건전한 금융질서 형성을 위해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”고 밝힘
- 한편, 대부업 실태조사는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영업실태를 파악해 금융소외자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, 매년 반기별로 2차례 실시

### [13. 8. 15] 충남 기업인大賞 종합대상에 (주)길산파이프

- 경영대상에 와이엠씨(주), 기술대상에 장암칼스(주) 등 선정 -

○ 충남도는 15일 도내 중소기업 중 경영실적이 우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(주)길산파이프 등 10개 업체를 기업인 대상 수상업체로 선정

- 도에 따르면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충남 기업인대상 수상업체는 기업인 대상 부문에 ▲종합대상=(주)길산파이프(대표 정길영) ▲경영대상=(주)와이엠씨(대표 이윤용) ▲기술대상=장암칼스(주)(대표 구연찬) ▲수출대상=(주)신호인더스트리(대표 이필진) ▲창업대상=(주)제이와이(대표 조준영) 등 5개 기업 선정
- 또 우수기업인상에는 ▲코리아휠(주) (대표 최훈) ▲(주)이림전자 (대표 정재덕) ▲(주)세이크(대표 호진원) ▲(주)이엔이텍(대표 이봉용) ▲(주)천일콘크리트(대표 조희영) 등 5개 기업 선정
- 이번 기업인대상에서 종합대상에 선정된 (주)길산파이프는 스테인레스 강관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, 특허, ISO, 이노비즈, 벤처기업 인증을 통해 아파트 건설현장은 물론 KTX 생산라인에도 부품을 납품하는 등 전국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임
- 또 경영대상에 선정된 와이엠씨(주)는 배킹 플레이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, 초정밀가공 및 소재면 휨 교정기술이 뛰어나며 지난 2011년에는 국내 최초로 스퍼터링 장비를 개발, 양산체제를 갖춘 유망 기업임

- 기술대상에 선정된 장암칼스(주)는 윤활유 및 특수그리스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, 특히 ‘우레아 그리스’ 제품은 저소음, 저진동으로 국내 자동차 3사에 납품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임
- 이와 함께 수출대상에 선정된 (주)신호인터스트리는 PVC SHEET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인쇄선명도, 균일인쇄 등 표면 제어기술, 공정제어 기술력을 인정받아 일본, 터키, 러시아, 미국, 호주에 수출하고 있으며 향후 해외시장 전망이 밝은 기업임
- 창업대상을 차지한 (주)제이와이는 학생용 책상 및 의자 생산하는 업체로,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높낮이 조절 가능한 제품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창업 4년차 기업임
- 도 관계자는 “기업인대상 및 우수기업인상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은 도 경영안정자금대출시 우대금리(3%) 적용, 해외시장 판로 지원, 중소기업지원기관이 수여하는 중앙단위 포상기회 제공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”며 “이밖에도 충남도를 대표하는 우수기업이라는 홍보효과로 회사의 대외 이미지가 개선되고 매출이 급증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”이라고 밝힘
- 한편, 기업인 대상 수상업체는 오는 내달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‘제20회 충청남도기업인대상 시상식’에서 시상할 예정

### ['13. 8. 14] 中원난성 공상업연합회와 경제 협력 모색

#### - 경제무역교류단 꾸려 충남 방문...경제교류 등 실무합의서 채택 -

- 중국 원난성 공상업연합회 장궁샹(張功祥) 제1부주석 등 경제무역교류방문단이 14일 충남도방문
- 원난성 공상업연합회의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안희정 지사의 제1회 중국-남아시아 박람회 참가, 도와 원난성간 우호교류협정 체결, 도 경제통상실과 공상업연합회간 경제교류협정의향서 체결 이후 처음
- 도는 이날 원난성 공상업연합회와 양 지역 기업인간 상생 협력과 경제무역 발전을 위한 실현 방안 협의
- 또 ▲경제 및 기업인간 교류▲ 각종 교역회, 전시회, 판촉회 등 참가 ▲온라인을 이용한 업무 협력 ▲ 경제, 무역, 투자 및 시장정보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교류협정 실무합의서 채택
- 최운현 도 경제통상실장은 “원난성은 중국 남부지역과 남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중심지”라며 “도내 기업들의 무역박람회 참가와 기업인 인적교류를 적극 지원하고, 상호 호혜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실리적 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”고 밝힘
- 한편 원난성 공상업연합회는 원난성 내 중소기업에 대한 권익보호, 정보 제공, 대출, 시

장개척 지원 등 업무를 하고 있으며, 8만8000여명의 기업인 회원 가입

### ['13. 8. 8] 현대위아 서산에 첨단부품 공장 짓는다

#### - 2019년까지 370억원 투입 연간 300억원 수입대체효과 기대 -

- 세계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는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인 현대위아(대표 정명철)가 서산지역에 국내최대 자동차산업 전문 단지 구축
  - 충남도는 8일 서산일반산업단지에서 현대위아와 일본 IHI사간 합작법인인 '현대위아 IHI 터보 주식회사' 서산공장 기공식
  - 이번에 건립되는 현대위아 IHI 터보(주) 서산공장은 오는 2019년까지 총 37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, 완공 시 연간 75만대 규모 터보차저 생산시설을 갖출 예정
  - 현대위아 IHI 터보 주식회사는 내년까지 1차로 3000평 부지에 150억원을 투입해 생산시설을 갖춘 뒤 오는 2015년 터보차저 양산
  - 터보차저는 가솔린 및 디젤엔진에 부가적으로 장착돼 엔진 출력 및 내연기관의 크랭크축에 일어나는 회전력을 향상시켜주는 첨단부품임
  - 현대위아와 함께 합작회사를 설립키로 한 일본 IHI사는 매출 15조원, 직원 2만6000명, 계열사 187개를 거느린 대기업으로 폭스바겐, 벤츠, 도요타, 피아트 등에 터보차저 등 자동차 핵심 부품 공급
  - IHI사는 이번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오는 2016년까지 터보차저의 핵심기술인 터빈 휠, 샤프트, 콤프 휠 등을 현대위아에 기술 이전
  - 현대위아 IHI 합작법인은 터보차저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전량 국산화 할 계획으로 오는 2020년 100만대 생산체제가 구축되면 연간 30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
  - 도 관계자는 “이번 서산공장 설립으로 충남이 국내 최대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것”이라며 “여러 협력업체의 동반이전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힘
  - 한편, 현대위아는 지난해 충남도 및 서산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까지 12만 7000평 규모에 6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000개 육성계획

### ['13. 8. 6] 취업상담사 '고용률 70% 달성' 앞장 선다

#### - 6일 도·시군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동워크숍 -

- 충남도는 6일 충남도경제진흥원에서 도와 시·군 취업상담사 30여명이 참석한 가

운데 ‘취업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동워크숍’을 개최.

- 도 및 시·군 취업상담사, 유관기관과 일자리정책 방향과 목표를 공유하고, 일자리업무 개선 방안 및 취업상담사의 전문성을 향상을 위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현장 상담사례 발표 및 토론 병행 실시
- 이번 합동워크숍은 ▲충남 일자리정책방향 설명(도) ▲일자리현장 상담사례 발표(당진 일자리센터) ▲지역기업 및 각급학교 연계방안 논의(충남교육청) ▲일자리 업무개선 방안 및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(충남일자리종합센터) 등의 순으로 진행
- 도는 이번 합동워크숍이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와 충남 고용률 70%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- 도 관계자는 “이번 합동워크숍은 충남의 고용률 70% 달성을 위해서는 취업상담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된 것”이라며 “일선 상담사들의 일자리 업무 개선방안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”고 밝힘

### [’13. 8. 5] 유망 중소기업 6개사 충남 온다

#### - 충남 제1호 국내복귀기업 등…2017년까지 635억원 투자 -

- 국내 복귀 기업(U턴기업)인 (주)케이에프엠이 예산에 공장을 신설하는 것을 비롯, 국내 6개 유망 중소기업이 충남 4개 시군에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하거나 신설
- 6개 기업의 투자규모는 2017년까지 모두 635억원으로, 신규 511명을 비롯, 총 853명의 고용 창출 기대
- 안희정 지사는 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이준원 공주시장, 이철환 당진시장, 이용우 부여군수, 최승우 예산군수, 홍중기 (주)케이에프엠 대표 등 6개 기업 대표와 투자유치협약 체결
- MOU에 따르면, (주)케이에프엠과 (주)삼중, (주)덕산 등 3개 기업은 2016년까지 247억원을 투자, 예산군 삽교읍 예산일반산업단지와 고덕면 예당일반산업단지에 새롭게 등지 틈
- PET이형필름과 보호테이프 생산 업체인 (주)케이에프엠은 예산일반산단 내 9917㎡의 부지에 내년까지 50억원을 투자해 공장 신설
- (주)케이에프엠은 특히 충남 제1호 국내 복귀 기업으로, 다른 국내 복귀 기업으로의 과급 효과 기대
- 도료용 희석제 생산업체인 (주)삼중은 예당일반산단 내 2만2120㎡의 부지에 2016년까지 120억원을 투자하고, 접착제 생산업체인 (주)덕산도 예당일반산단 내 1만3223㎡의 부지에 내년까지 77억원을 투입, 각각 본사 및 공장 이전

- 또 자동차부품 및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있는 비클시스템(주)은 2016년까지 210억원을 투자, 부여군 장암면 정암리 일원(2만536㎡)으로 본사와 공장 이전
- 우리나라 최초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이 업체는 전체 직원 중 60% 가량이 장애인으로, 향후 도내 장애인에 대한 고용 확대 기대
- 이와 함께 천연수지 생산업체인 (주)라톤코리아는 2015년까지 125억원을 투자해 공주시 월미동 월미2농공단지내 1만9650㎡의 부지에,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(주)티에스피는 2017년까지 53억원을 투자해 당진시 면천면 문봉리 일원 1만7066㎡의 부지에 각각 본사와 공장을 이전·설립
- 각 기업들은 특히 지역사회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과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,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도 약속
- 도는 이번에 MOU를 체결한 6개 기업이 계획대로 투자를 진행할 경우, 향후 5년간 6042억원의 생산유발과 2051명의 고용창출, 1528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기대
- 이 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본격 시작한 이후에는 매년 4418억원의 생산액과 893억원의 부가가치, 420억원의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
- 이날 협약식에서 안희정 지사는 “이번 협약은 서북부권 중심에서 서남부 및 내륙권으로,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민선5기 기업유치 정책의 성과”라며 “각 기업들이 계획대로 투자를 진행하고,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”을 당부
- 안 지사는 또 “도는 시·군과 협력해 각 기업들이 충남에 정착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덧붙였다

### [’13. 7. 26] “여름방학 에너지절약 절전노트로 완성”

#### - 道 초·중학교 여름방학과제로 절전노트 6만부 제작·배포 -

- 충남도는 에너지절약 조기교육을 통한 습관화 유도를 위해 초·중학교의 여름방학 과제로 전기절약을 위한 ‘절전노트’를 제작·배포
- 도에 따르면 이번에 배포되는 절전노트는 에너지에 대한 이해와 탐구활동을 통해 에너지절약 습관화를 유도하고, 여름방학 기간 동안 가정에서 학생 스스로 전기절약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도내 총 학교의 약 64%인 399개 학교에 6만부를 제작·배포
- 절전노트의 내용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쉽게 에너지를 이해하도록 ▲에너지의 중요성과 전력위기 등 에너지에 대한 이해 ▲월별 전기사용량 체크 및 고효율 전기제품 알아보기 ▲전기절약을 위한 아이디어 및 절약실천점수 계산 ▲여름철 전기절약 행동요령



및 에너지절약 퀴즈 등으로 구성

- 절전노트 내용 기획은 에너지관리공단이 담당했으며, 과제물 채택 및 신청학생의 수요 파악은 충청남도교육청의 지원 받음
- 오세현 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“이번에 배포한 절전노트로 학생들이 방학기간 중 가정과 학교에서 절전실천의 절전지킴이가 될 것”이라면서 “개학 후 우수 과제물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의 평가와 시상을 실시해 전기절약의 생활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힘
- 한편, 도는 이번 ‘절전노트’ 배포와 함께 올해 159개 학교 1만7800명을 대상으로 ‘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절약의 필요성,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 방법’ 등의 내용으로 조기교육 실시
- 초·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절약 조기교육 시책인 ‘찾아가는 에너지교실’을 운영해 그동안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총 605개 학교 7만9770명의 학생에게 에너지절약 조기교육 실시

### [13. 7. 26] 상반기 수출 300억 달러 돌파 ‘사상 최대’

- 1~6월 도내 수출액 312억2900만 달러...전년대비 6.4% 증가 -
- 전국은 0.6% 증가 그쳐...무역수지 흑자 141억 달러 전국 2위 -

- 충남도 내 상반기 수출액이 300억 달러를 돌파하며 또 다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. 무역수지 흑자액도 140억 달러를 넘어서며 전국 2위 유지
- 26일 도에 따르면, 올해 1~6월 도내 총 수출액은 312억2900만 달러로, 지난해 같은 기간 293억3700만 달러에 비해 6.4%(18억9200만 달러) 증가 \* 자료 : 한국무역협회
- 같은 기간 전국 수출액은 2766억4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2749억7600만 달러에 비해 0.6%(16억7100만 달러)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남
- 또 도내 수입은 글로벌 경기둔화로 원유 수입이 줄면서 지난해 상반기 175억3700만 달러보다 2.5%(4억4100만 달러) 감소한 170억9600만 달러로 집계
- 이에 따라 도내 무역수지 흑자액은 지난해 118억 달러보다 19.8%(23억3300만 달러) 늘어난 141억3300만 달러로 전국 2위 유지
- 올 상반기 수출을 구체적으로 보면,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무선통신기기로 289.0%를 기록했으며, 석유화학중간원료(97.2%)와 전자응용기기(27.7%), 자동차 부품(15.6%) 등이 뒤를 이음
- 반면 엔저 현상에 따라 석유제품이 11.1% 감소하고, 주요국에 대한 수출 부진으로 자동차 수출액도 10.8% 줄었으며, 최근 3년간 수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반도체도 2.2%

감소

- 품목별 수출액 및 비중은 ▲반도체가 77억5100만 달러 24.8%로 1위를 기록했고 ▲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57억 1600만 달러 18.3% ▲전자응용기기 26억 7200만 달러 8.6% ▲석유제품 25억2400만 달러 8.1% ▲석유화학중간원료 17억8900만 달러 5.7% ▲자동차부품 12억2600만 달러 3.9% ▲컴퓨터 12억1600만 달러 3.8% 등의 순
- 국가별로는 ▲중국이 142억700만 달러로 가장 많고 ▲홍콩 36억3000만 달러 ▲미국 25억4500만 달러 ▲대만 16억7500만 달러 ▲일본 14억6700만 달러 ▲베트남 12억 7000만 달러 등으로 집계
- 이중 중국과 아세안, 미국지역은 수출이 증가했으나, 일본과 홍콩, EU 시장은 수출이 감소
- 최운현 도 경제통상실장은 “하반기에도 엔저 현상 지속으로 해외시장에서 일본 제품과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며, 미국 등 세계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상반기보다 수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된다”며 “특히 최근 발효된 한·터기 FTA 등을 활용, 수출선 다변화를 위한 해외 마케팅 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간다면 올해 수출 목표(630억 달러)는 무난히 넘어 설 수 있을 것”이라고 밝힘
- 한편 도는 중국과 동남아 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를 위해 10월 말 홍콩에서 도내 유망 수출기업 32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‘충남우수상품 전시·상담회’를 개최할 계획

### [13. 7. 24] 도내 외투기업 투자환경 만족도 높다

#### - 생활환경·만족도 조사...89.9% “5년 이내 이전계획 없어” -

- 충남도 내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장규모와 입지비용, 행정서비스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.
- 충남도는 도내 외국인투자기업 19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6월 20일까지 생활환경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남
- 도에 따르면, 이번 조사에 참여한 도내 외투기업으로부터 만족도가 높아 계속유지·관리해야 할 환경으로는 ▲시장 환경 ▲행정서비스 환경 ▲입지 환경 등이 꼽힘
- 이는 내포신도시와 세종시 등 충남의 시장 성장과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이용 비용, 충남도의 기업친화적 행정서비스 등의 영향인 것으로 해석
- 향후 5년 이내 이전계획에 대해 응답업체의 89.9%가 ‘이전계획이 없다’고 응답했으며 10.2%만이 ‘있다’고 응답
- 이전계획의 이유로는 ▲인건비·임대료 등 비용 상승 ▲관련 기업이전 ▲수도권 규제완화 ▲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시장 축소 등을 꼽았으며, 기타 의견으로는 ▲사업아이템

변경 ▲규모협소 ▲외투자분 상실 등이 뒤를 이음

- 2013년도 추가 투자계획에 대해 응답기업의 51%는 ‘계획 미정’이라고 답했고, ‘그렇다’와 ‘아니다’가 각각 24.5%로 조사
-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는 업체 중 올해 주요 투자분야는 ‘신제품생산 및 생산설비 확대’가 55.2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‘유지보수를 위한 시설투자’, ‘R&D 투자’가 각각 17.2%로 꼽혀
- 외국인투자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행정규제완화 및 편의성 제고가 28.1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▲산업인프라 확충 ▲조세감면 확대 ▲입지 및 현금지원 확대 순으로 조사
- 반면, 조사에 응한 외투기업은 만족도가 낮아 중점강화 해야할 환경으로 ▲생활환경 ▲조세환경 ▲금융환경 등을 꼽음
- 특히 만족도가 가장 낮은 세부항목으로 응답한 ▲의료환경 ▲관리직 및 일반직 인력수급 ▲교육환경 등은 열악한 인프라가 바탕이 된 것으로,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
- 도 관계자는 “이번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외국인투자기업 토착화 방안에 반영토록 하고 시군 투자유치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군에 통보할 예정”이라며 “향후 만족도가 낮은 항목은 물론 만족도가 높은 항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외국인투자기업의 도내 조기정착 및 증액투자를 유인해 나가겠다”고 밝힘
- 한편, 이번 조사는 지난 4월부터 6월 20까지 60일 동안 실시했으며 내용은 4개 분야 59개 항목으로 충남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와 함께 실시
- 조사는 주로 우편 및 이메일 발송 위주로 실시되었고 현장방문도 같이 이뤄졌다. 주요 내용은 ▲일반현황(종업원수, 투자국명, 매출액 등 6문항) ▲경영 및 생활만족도 8개 부문(환경별)별 만족도(세부 문항 45개) ▲투자 및 이전계획(이전계획 및 투자의향 등 7문항) ▲기타(1문항) 건의사항 등

### [13. 7. 23] 탕정·영보산단 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

#### - 23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…환경갈등 최소화 기대 -

- 충남도는 23일 소회의실에서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와 영보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항목·범위 등의 결정을 위해 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’ 개최
- 도에 따르면, 환경영향협의회는 산업단지 계획지 주변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기에 앞서 평가 항목과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체로, 주민대표를 비롯해 승인기관과 금강유역환경청, 대학교수, 환경단체 전문가로 구성

- 특히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발족한 것으로, 도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
- 이번 협의회 심의대상인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는 (주)탕정테크노파크에서 총사업비 462억원을 들여 오는 2016년까지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일원에 36만4000㎡ 규모로 신규로 조성될 예정으로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체 등이 들어섬
- 영보일반산업단지는 GS에너지(주)와 보령LNG터미널(주)에서 총사업비 4005억원을 들여 지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일원에 124만8000㎡ 규모로 조성 중에 있으며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체 등이 입지할 계획
- 이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오는 29일부터 결정내용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
- 협의회 위원장인 최운현 경제통상실장은 “이번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산업단지 계획 수립시부터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”라며 “오늘 협의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”고 밝힘

## 주요 민간 기관·단체 경제리포트

- 삼성경제연구소(CEO 인포메이션, SERI경제포커스) : <http://www.seri.org>
  - 차세대 인터넷 패러다임, M2M
  - 저성장기의 경영전략
  - 직장인의 행동에 관한 연구
  - 2013년 3/4분기 소비자태도조사
  - Is Japan's Trade Deficit Becoming Chronic?
- 현대경제연구원 : <http://hri.co.kr>
  - 가계부채 위험의 급등과 시사점
  - 결혼관 혼란을 가중시키는 초식남과 육식녀
  - Monthly Economic Review(13-08)
  - 중국경제의 구조조정 현황과 전망
- LG경제연구원 : <http://www.lgeri.com>
  - China Insight 47호 : 중국 휴대폰 업계의 곤경과 활로 모색
  - Japan Insight 60호 : 일본의 빅데이터 활용 전략
  - 미국 혁신적 연구의 산실, DARPA
  - 2013년 하반기 국내외 경제전망
- 한국은행 : <http://www.bok.or.kr>
  - 해외경제포커스(제 2013-34호)
  - 국민계정 리뷰(2013년 제2호)
  - 세계 비철금속시장의 현황 및 전망
  - 가계수지 적자가국의 경제행태 분석
  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심리의 특징과 실물지표와의 관계 변화
  - 물가보고서(2013년 7월)
  - 주요 신흥국의 최근 경제동향과 전망
  - 우리나라 지적재산권수지 현황 및 향후과제
  - 세계 천연가스 시장의 현황 및 전망
  - 주요 통화관련 지표 동향 및 평가

※ 상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.